

제7회 우리술문화원(Korea Suul Institute, KSI) 학술 심포지움
- 기초문

“우리술문화원 학술 심포지움(KSI Suul Symposium)은 2016년 6월, 서울 무악재에서 한-일 간 발효 식품문화를 조명한 첫 행사 이래 올해 제7회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이 행사는 우리 고유의 전통 양주기술과 음주문화의 전승 과정 및 현대적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학술행사의 큰 목표는 외국의 와인학이나 사케학에 견줄만한 한국의 술학(Suul studies)이라는 학문 분야를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초석을 놓아주신 많은 우정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

지난 제6회 대회의 주제는 ‘기원’이었습니다. 올해 제7회의 주제는 ‘인간과 술’입니다. 여기에 ‘유산, 혁신, 진화’라는 부제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제를 통해 세 부분으로 주제를 다시 나눈 것은 우리술 역사의 흐름에 대한 준비위원들의 숙고에서 나온 설정입니다. 우리술의 역사는 이를테면 ‘우리술 백년사’, ‘우리술 천년사’처럼 어느 한 기간을 분절시켜 다루기에는 맞닥뜨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지구가 생겨난 이래 비가 내리고, 땅이 다져지고, 아름다운 꽃과 꿀벌이 나타나 인류의 출현을 기다리던 때, 이미 술은 생겨났습니다. 어느 영특한 주장에 따라 양주법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이 술빚기를 가르친 셈입니다. 이후 이 땅에 벼씨가 떨어져 논밭을 일구고,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우리술의 역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변화와 혁신 속에서 나름대로 표준화를 거치며 발전해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의 발생과 충격 또한 일어났습니다. 우리술 역사에서 그 흐름을 바꿀만한 충돌지점을 우리술문화원은 일제강점기의 소위 우리술 수난사에서 찾지 않습니다. 주세 징수를 통한 수탈과 착취, 문화유산 왜곡 등의 변주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온 견고한 발효기술 유전인자를 통해 그리고 도도한 문화사상사 속에서 어느덧 세류가 되어 큰 물결 속으로 침잠하고 있노라고 감히 진단하는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술의 사건사는 어느결에 일상이 되어버린 AI, Chat GPT, Metaverse 등 질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술을 빚는 세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고 아주 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유산’에서 **이화선**은 ‘쌀, 술’이라는 제목 아래 ‘**농경과 술**’을 다루면서 때로는 유장하게, 때로는 급진적으로 발전해온 양주기술과 농경, 농정의 관계를 발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대국가에서 발생했던 재난과 구휼, 집정에 술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술과 사회 불평등구조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지, 동아시아에 특별한 협업체계를 심어온 벼농사와 가양주 유산이 글로벌시대 성공적인 마을기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지, 체제 속에 투영시킨 술-이론(Suul theory)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은 사라져가는 붉은 쌀, 붉은 술 유제 속에서 옛것 그다음 시대를 상상하는 지금,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려는 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신’에서는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보이지 않던 것을 포착하여 정밀하게 분석해내는 일, 이를 통해 공동체 속 지속가능한 전승과 재창조를 가능하게 한 일, 그것들을 우리술문화원은 우리술의 혁신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인간의 사상과 의약학 속에 담긴 술의 태양을 거론합니다. 먼저 **진성수**는 ‘유교경전 속 술의 상징체계’라는 제목 아래 **‘사상과 술’**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김호**는 **‘의학과 술’**을 통해 의약학서와 의료문화에 나타나는 술을 조명합니다. 동양에서 유교와 의약학 분야, 이 둘은 우리 전통기술사의 한복판을 관통하며, 우리술이 오늘날까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며 계량화되고, 표준화되어 문헌으로, 구전으로 전승되어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집니다.

‘진화’를 다룰 또 다른 두 분은 경이로운 하이-테크놀로지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이다음 시대와 조우를 상상하게 합니다. **박영신**은 **‘기술과 술’**이라는 제목 아래 이 시대가 만나고 있는 고도의 기술을 발제합니다. 술을 빚는 때로는 술을 마시는 일이 화려한 기술과 만났을 때 얼마나 신나는 일이 될까 상상만으로도 유쾌해지는 내용입니다. 이번 심포지움의 대미로 **박선옥**은 **‘술과 예술’**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술의 아름다운 미래와 역할을 논제로 다룹니다. ‘술과 인간’, ‘인간과 술’을 그리기 위해 직선과 곡선, 원, 채색 등 그림이 가진 요소를 다루면서도 앞으로 100년, 300년 후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꿈꾼다”는 시적인 상상력이 가미된 발제입니다. 인류기원 이후 유구한 시간을 거치며 변화와 혁신 속에서 오늘에 이른 우리술은 기후변화 속 골든-타임을 염려하는 이때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장쾌한 일입니까! 우리술이 새로운 기술 그리고 반짝이는 색깔과 어우러져 또 다른 진화의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는 맛있는 술 한잔을 빚는 일이, 우주에 빛나는 별 하나의 발견보다 더, 경이로운 기술의 발전보다 더, 인류를 행복하게 해왔노라고 자부합니다. 이번 제7회 우리술문화원 학술 심포지움을 통해 ‘나에게 술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15일
우리술문화원장 박선옥